

'다이어움 익산' 완성

정현을 익산시장, 송년사서 "악재 속에 미래성장동력 가시화 한 한해"

정현을 익산시장이 코로나19 등 악재 속에 미래성장동력을 가시화한 신속한 한 해를 되짚었다.

송년사를 통해 정현을 익산시장은 "2021년 굵직한 지역 현인들이 대부분 해결되었고 미래 성장동력 사업들도 가시화되고 있다"며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임안년 새해에도 익산시민과 함께 힘 없이 달려 다이어움 익산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재정혁신을 통한 부채정산, 익산-논산연무 IC까지 연결된 하나로와 평화유교 개통 익산시 신청사 착공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과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악취와 미세먼지의 강력한 저감과 도내 최초 민간특례 도시공

원 사업 등 굵직한 성과를 소개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 나눔공간 개설 소상공인 지원 34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익산다이어움 발행으로 지역 선순환 경제체계 마련에 민생경제를 지켜냈다고 전했다.

역경 속에서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2,500억원 규모의 KTX익산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사업 대상 선정, 제3산단 일반산업용지 100% 분양 달성 국가직 품클러스터 분양률 74%를 돌파, 그린 바이오벤처캠퍼스 유치 등 가시적 성과를 일궈냈다.

특히 정 시장은 "정부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요소수 부족 사태에 지역 기업과 협력해 전국 유일 요소수 안정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민간협업으로 빠른 해법을 마련했다"며 "익산 도약의 가장 큰 원동력은 시민임을 다시 한번 증명할 한해"라고 말했다.

이어 아홉 정년부터 노년까지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비롯해 도내 최초로 전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본안부담금 지원 공휴일 시간에 보육서비스,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연금도입, 최대 규모의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지급 등 익산형 정책들이 대거 탄생한 한해"라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올 연말에는 정부가 자랑하는 제3차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며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공식 출범을 큰 성과로 꼽았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인 '익산다이어움'의 지역선순환 효과가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우수'

익산다이어움, 행안부 우수사례 평가... 특별교부세 1억원 등 확보

익산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인 '익산다이어움'의 지역선순환 효과가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모델을 전파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됐다.

익산사랑상품권(익산 다이어움)은 코로나19 위기 속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 선순환 경제구조의 마중물로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시는 익산사랑상품권(익산 다이어움)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 구매력

지역 소식통

군산시 방축도 광역상수도 내년 3월 완공

내년 3월이면 방축도에도 용담댐에서 공급되는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군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총 사업비 120억원을 투자해 선유도에서 방축도까지 해저관로 3.4km를 포함한 상수관로 6.8km를 매설했으며 가압장 배수지 등 수도시설을 설치, 내년 3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지하수와 해수 담수화에 의지해왔던 도서지역의 식수난이 해결돼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명도·말도 지역에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64억원을 투입해 상수관로 7.3km 매설 및 가압장, 배수지 등 수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시설계획을 추진 중이다.

/군산=한경봉기자

익산시 직원들의 희망 다지는 따뜻한 종무식

익산시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선보이며 올 한해를 뜻 깊게 마무리했다.

시는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직접 구성하고 촬영한 특별한 영상과 함께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종무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약 20분 분량으로 제작된 이번 홍보 영상은 기획안 작성부터 촬영까지 모두 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첫 작품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11개 부서에서 직원 40여명, 일반 시민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제작 기간만 2달 이상이 소요됐다.

"한그만두면 다행이야"라는 주제로 제작된 영상은 각 부서에서 업무 중 생긴 에피소드와 에환을 감각적이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며 진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이 직접 구성안을 작성하고 출연해 일선 현장의 이야기를 더욱 현실감 있게 담아냈다는 평가다.

/익산=이득훈기자

침수피해 신속 보상 전국 모범사례 '인정'

익산시, 보상금 지급 마무리 단계... 피해 상인 98% 만족

익산시가 지난 7월 발생한 중앙동 침수피해 상인들을 위한 보상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매일 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 동안 271명, 보상금 20억 4천여만원이 접수됐다. 3월 만에 총 신청인원의 88.4%, 보상금 기준 98.4%의 신청이 완료되며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현재 293명(96.7%), 20억6천여만원(99.6%)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보상접수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시에선 신속하고 만족도 높은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피해 발생 즉시 정현을 시장과 오막걸리 부시장 체제의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침수피해 복구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모든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했다.

시는 침수피해 상인들을 위한 경영애로자금 융자 등 각종 금융지원, 세계 지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감면, 중앙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등 피해상가 경영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7월 10일부터 8월말까지 힘내라 익산! 희망장

터! 운영을 통해 피해상가 이용자에게 다이어움카드 30% 지원 혜택을 주어 피해지역 상가 매출향상에 큰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전라북도 재해구호기금 유치, 수재의연금 모금 추진, 업체 부담금 협상 및 확보 등을 통해 보상 재원을 마련하고 동시에 법령검토, 보상심의 위원회 구성으로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정현을 시장은 "중앙동 침수피해 복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신 유관기관과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익산시는 재발대책 마련과 시민과의 소통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기자

군산시, 옥회천 정비사업 추진 박차

군산시는 매년 집중호우에 따른 상습적인 침수피해 등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옥회천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옥회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164억 원을 들여 수송동에서 화현면 월연리까지 하천연장 6.2km에 폭 40 ~ 60m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시는 제방축조, 교량 10개소, 배수 구조물 등의 시설물을 오는 2026년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지난 2012년 8월 13일 약 400mm의 집중호우가 내려 지역 주택, 상가, 차량 침수 등 큰 피해를 겪은 바 있다.

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군산 시가지를 거쳐 서해로 흐르는 경포천 홍수량의 68%를 새남금 유역인 만경강으로 배제하기 위해 옥회천을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하천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을 완료했다. 지난 2017년부터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했으

며 현재 90%정도 보상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까지 시공업체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착공했으며, 현재 사업구간 토질조사, 시공측량, 설계서 검토, 현장사무실 설치 완료했다. 특히,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사 시행 시 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천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오는 2022년부터 연역자전거, 교량 설치, 제방축조 등 본격적으로 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해, 202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희망2022나눔캠페인 열띤 기부행렬

군산시에 지역 내 기업과 단체로부터 이웃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잇따르며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30일 개복교회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써 달라며 성도들의 성탄절 감사헌금 1천백7십만3천원을 성금으로 기탁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여성헌 담임목사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주)아셈환경연구원 임직원 일동도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

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고강영 대표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임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기탁하게 됐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건축사협회 군산지역건축사회에서도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서일석 회장은 "회원들의 소중한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